

**변화** 는 올해처럼 중요한 봄을 보내는 NATO의 핵심기조이다. 이는 5월 3일 자 북대서양협의회 외무장관 특별회의를 필두로 잇달아 개최되었던 5차례의 NATO 장관 회의에서도 느낄 수 있으며, 7월초의 런던 정상 회담에서 정점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변화가 이미 일어났고 더 많은 변화가 예견되고 있기는 하지만, NATO지도자들은 근본적이면서도 독특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전반적이고 장기적인 事案은 유럽의 평화상황에 관한 것이지만, 눈앞의 더욱 급박한 문제는 독일의 통일에 대한 소련의 동의이다. 모든 국민이 그들 스스로의 정부를 선택하고 각국이 그들의 제휴국가를 선택할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소련 지도층은 사실상 독일이 원한다면 독일이 NATO 및 그 군사조직에 귀속하는 권리를 인정하였다.

더군다나 開戰을 제외하고는 소련으로서는 그것을 저지할 능력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서방측은 소련의 안보우려를 불식시키고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개혁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2가지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것이 일련의 NATO 회의와 동서 진영간의 쌍무접촉시 맥락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두가지 범주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으며, 각각은 이해와 합의를 모색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Follow-on-to-Lance(FOTL) 미사일체계의 개발을 취소하고 유럽에 첨단 핵폭탄의 배치를 중지하려고 한다는 부시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나토특별협의회에 참석한 장관들과 이어서 5월 9~10일간 개최된 핵계획그룹회의시 각국 국방장관들은 지지를 표명하였다.

재차 5월 22~23일간의 국방계획위원회 회의시 NATO의 국방장관들은 회원국들이 매년 3%씩 국방비를 증액토록 한 것은 지나치다고 공표하고, NATO의 군사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결의하였다.

마침내 6월 7~8일간 스코틀랜드에서 개최된 정기 春季 북대서양협의회 외무장관회의에서

는 유럽재래식전력(CFE)조약에 서명직후 유럽내 미·소의 단거리 핵무기(SNF)에 대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부시 대통령의 제안을 지지하면서, 일단의 NATO정책에 대한 재검토 사항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성명들은 같은 시기에 개최되었던 다른 회의들을 감안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투플러스 포」 회의는 소련의 이유있는 망설임으로 진전이 늦기는 하지만, 독일통합을 위한 급속한 움직임을 용인하였다. 이를 보완하는 쌍무 장관회의가 여러차례 개최되었다.

특히 제임스 베이커 美 국무장관과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이 모스크바와 워싱턴을 오가며 만난바 있다. 마가레트 대처 수상, 프란시스 미테랑 대통령, 헬무트 콜 수상도 부시 대통령과 신속한 만남(잡은 장거리 통화)을 가졌고, 마침내는 고대하던 부시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5월말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이 정상회담은 처음에는 기대에 못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이에 앞서 CFE와 전략무기감축(START)협정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는 하였지만, 이를 위한 협상과정에서 애초 회의개최를 위한 추진력이 유지되지 못하였고, 정상회담 직전에는 상당히 미약하게 되었다.

실제 START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진전이

一笑一少一怒一老

## 女비서의 김칫국

『이번 일요일밤에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취임한지 얼마 안된 젊은 사장이 여비서에게 물었다.

「아니요. 아무런 약속도 없어요.」

여비서가 얼굴이 빨개지며 대답했다.

『그렇다면 제발 부탁이니, 다음 일요일 아침부터는 출근 좀 일찍 하세요』

이루어졌기는 하지만, 양국 정상들의 주요 관심사로 합의가 기대되었던 독일통합에 대한 공동 입장은 구체화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정상회담은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더욱 성공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위해 9개항의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는 중부지역의 군을 특히 대상으로 하였지만, 전 유럽을 위한 CFE협상의 지속 언약을 지적하였다.

그는 CFE 조약 서명후 SNF에 대한 협상도 진전시킨다는 합의사항을 반복하였으며, 독일이 핵·생물 및 화학(NBC)무기를 생산하거나 보유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확실히 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그는 핵뿐 아니라 재래식전력 소요에 대한 NATO의 전반적인 전략검토를 언급하였다. 과도기중에는 NATO군이 현재 동독의 영토에 주둔하지 않을 것이며, 그때까지는 소련군이 그곳에 머물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 그는 독일이 현재의 영토로서 국경을 확실하게 할것임을 보장하였고,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역할이 강화될 것임을 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독일이 페레스트로이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음을 덧붙였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이 발표로 안심하기는 했지만 독일의 NATO 회원국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ATO와 독일정부의 결의는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뒤이은 그의 성명은 서방측에서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이해하고, 비록 그의 다양한 제안들—독일이 양쪽 조약기구에 동시 가입하거나 또는 독일이 군사조직의 일원이 되지않고 NATO에 가입하는 방법이나, 이 2가지 안을 변형시킨 것등—이 NATO로서는 받아들일수 없는 것이지만, 이런 것들은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책 모색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해결책이 설득력이 있을 필요는 없

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고르바초프가 국민들에게 가까운 장래에 소련 안보를 위한 순수한 보장책으로 제시할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만일 그의 미약한 입장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홍보효과를 적절히 거둘수 있다면, 국내에서 그의 입지를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서방측은 그가 이러한 점에서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최종 목표는 개혁되고 민주적인 소련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 기꺼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이를 위한 기반이 런던의 NATO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지기를 분명히 기대하고 있다. 그의 주요 관심사항이 통일 독일의 장래 군사능력이기 때문에 그는 분명한 한도의 보장을 모색할 것이다.

그는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무리 우호적이고 밀접한 동맹일지라도, NATO나 미국이 한 주권국가에 대해 일방적인 한도의 부과를 받아들이도록 명령할수는 없다.

하지만 2가지 점에서 성사를 위한 희망을 가질수 있다. 첫째는 소련군에도 이와 유사한 한계가 적용되고 유럽 전력의 일반적인 제한에 해당된다면, 독일 스스로 이러한 제한의 이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독일의 경제력으로, 이를 통해 독일은 분명히 소련로서는 큰 변혁이 될 부문에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을 것이다.

NATO 정상회담에서 독일을 대변할수는 없지만 NATO를 위한 결정을 내릴수 있으며, CEF조약의 즉각적인 후속조치로 동맹군 감축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할 것이다. 또한 이 회담에서는 소련을 둘러싸고 있는 공격적인 서구진영이라는 개념이 가공에 불과하다는 것과 NATO의 안정이 전세계에 유익한 것처럼 소련에도 득이 된다는 것을 소련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도전이다. 그러나 우리를 매일 놀라게 만드는 사상과 태도의 심각한 변화속에서 이와 같이 급격한 본질적인 변화도 달성 가능하게 될 것이다. (煥) <Miltech 90/7>